

에너지문제에 對한 美國輿論調査

미에너지개발협의회(USCEA)는 최근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결과를 검토, 에너지문제에 대한 미국여론의 향방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미국민의 대다수는 다시 에너지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지만 에너지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다음에 동 협의회 발표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중동사태로 에너지가 다시 여론의 관심사가 되었다.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2가지의 가장 중요한 문제중 하나로 에너지를 든 미국민의 비율은 1980년대에서는 불과 1% 내지 0%였다. 그러나 이 비율은 1990년 8월 1일~5일에 3%, 8월 6일~9일에 8%로 되고, 9월과 10월에는 9%까지 상승했다. 또 미국의 에너지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9월에 전년에 비해 18% 상승해 50%를 차지했다(1989년 9월은 32%).

그러나 에너지개발에 대한 지지도는 지금도 부족하다. 9월에 응답자의 52%가 에너지문제는 절약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에너지생산 증가가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30%였다.

미국민의 대다수는 지금도 발전용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데 대해 거의 모르고 있다. 8월의 응답자의 겨우 22%만이 앞으로 10년간 자기 거주지역에서 신규발전용량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8월에 에너지공급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45%였는데 비해 전력공급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겨우 17%였다.

미국민의 대다수는 원자력이 석유의 해외의

존도를 줄일 수 있다면 원자력을 더 많이 이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65%), 또 온실효과 가스 방출이나 대기오염도 줄일 수 있다면 원자력을 더 많이 이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75%).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인 지지는 원자력의 이점에 관한 인식이 더 확산돼 전원설비 증설의 필요성이 인식될 때까지는 신규발전소를 지지하는데 까지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USCEA는 여러가지 계획을 통해 이러한 요점에 대한 미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여론지도층(opinion leader)과 주의회의원들은 원자력의 이점을 일반국민 보다 잘 알고 있다. 예를 들면 원자력 이용이 온실효과가스의 방출을 줄인다는 것을 알고 있는 주의회 의원의 비율은 거의 4분의 3인데 비해 일반국민의 비율은 절반밖에 안된다.

일반국민과 주의회의원의 약 80%가 원자력이 앞으로 미국의 전력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일반국민도 주의회의원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는 주의회의원은 50%에 불과하다. 이같은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일반국민의 실제적인 의견을 지도자층에 전달하

기 위한 노력이 산업계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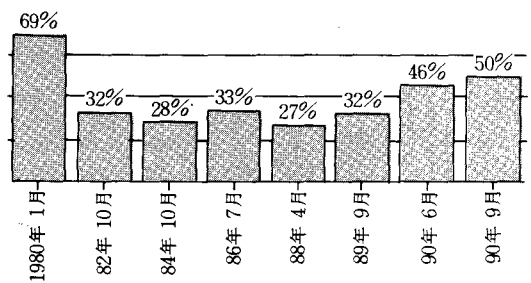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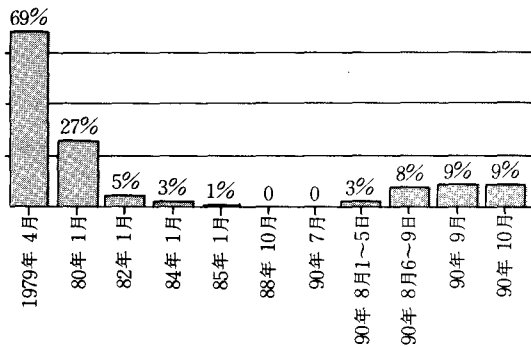
〈설문조사집계 및 결론〉

(설문) 현재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2가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자료: Cambridge Report / Research International)

(응답) 「에너지」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아래와 같았다.

(설문) 미국의 에너지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생각하느냐?

(응답)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아래표와 같았다.



(결론) 에너지문제가 미국민의 관심사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설문) 에너지문제 해결책으로 에너지이용의 절감을 최선책으로 보느냐, 아니면 에너지생산 증대를 강조해야 한다고 보느냐?

(응답)

	1983년10월	1990년9월
에너지이용의 절감	30%	52%
에너지생산의 증대	27%	30%
양쪽 모두 필요	34%	11%
양쪽 모두 불필요	4%	3%
모르겠다	5%	4%

(결론) 에너지개발에 대한 지지도가 지금도 부족하다.

(설문) 앞으로 10년간 전력수요를 충족하는데 있어 귀하의 지역은 현재 충분한 발전소와 기타 발전시설이 있다고 보느냐?

(응답)

있다고 본다	60%
없다고 본다	22%
모르겠다	19%

(설문) 미국의 에너지/전력 공급을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보느냐?

(응답)

	에너지	전력
매우 심각하다	45%	17%
어느 정도 심각하다	36%	35%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11%	25%
전혀 심각하지 않다	5%	13%
모르겠다	3%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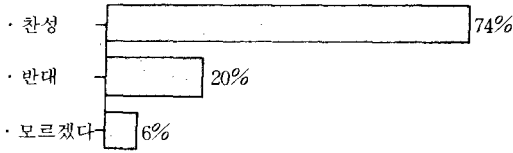
81% (에너지), 52% (전력) - 매우 심각하다
16% (에너지), 38% (전력) - 어느 정도 심각하다

(결론) 전력공급에 만족하고 있다.

(설문) 아래 의견중에서 어느 쪽에 찬성 또는 반대하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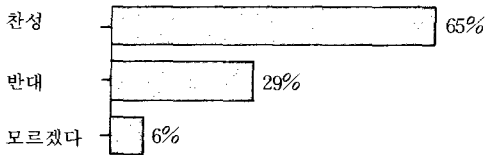
— 원자력이 미국의 석유 대외의존도를 감소시킨다면 원자력을 더 이용해야 한다.

(응답)



(설문) 원자력이 온실효과가스의 방출이나 대기오염을 감소시킨다면 원자력을 더 이용해야 한다.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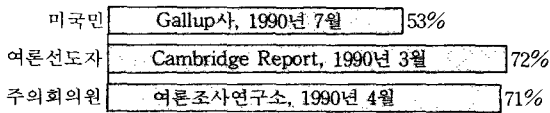


(자료 : Gallup사, 1990년 7월)

(결론) 원자력이 석유의 대의의존도나 온실효과가스를 감소시킨다면 원자력의 확대를 지지한다.

(설문) 발전용으로 원자력을 더 이용한다는 것은 온실효과가스의 대기오염 방출을 줄이는 것이다. 이 말에 동의하는가 반대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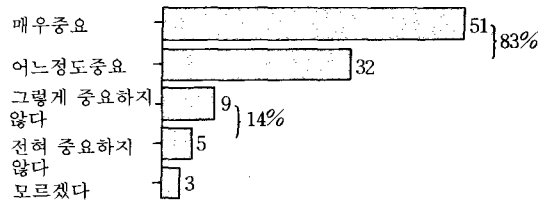
(응답) 「동의한다」는 비율이 아래와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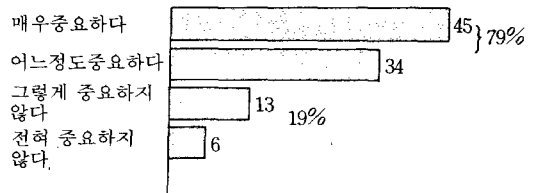
(결론) 원자력의 환경면에서의 이점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일반국민은 낮고 지도층은 높다.

(설문) 미국전체를 생각할 때 원자력발전소가 앞으로 미국의 전력수요를 충족하는데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보는가?

○ 일반국민



○ 주의회의원



(결론) 일반국민과 주의회의원이 원자력이 장래 중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설문) 국민의 대다수가 원자력발전이 앞으로 미국의 전력수요를 충족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가?

(응답)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이 47%였다.」

(결론) 많은 주의회의원들은 일반국민이 주의회의원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